

◁ 書 評 ▷

古代中國의 世界秩序 研究

金翰奎 著

서울 一潮閣

1982年 438面

秦·漢帝國時代(秦·221~206B.C. 漢 206~8, A.D.)는 中國이 그 역사상에 최초로 皇帝를 頂點으로 한 中央集權的 官僚制度를 그 支配手段으로 全中國을 명실공히 統一하였던 統一時代였다. 秦·漢帝國的 中國統一에 의하여 春秋戰國時代(770~221, B.C.)에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전하였던 中國文化는 秦·漢帝國的 정치 군사적 안정과 統一속에서 융합되어 中國古典文化의 完成을 보게 되었는데 고대 中國人의 天下觀念과 範疇 및 그 實體도 대체로 이 秦·漢시대에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本書는 秦·漢時代에 형성된 天下觀念과 範疇 및 天下觀念에 관련된 漢代의 政治制度를 論究하고 있는데 먼저 漢代 中國人의 天下觀을 파악하기 위해 先秦時代의 天下觀念과 範疇을 究明하고 있다. 著者에 의하면 先秦時代에는 오늘날 우리들이 認識하고 있는 世界의 개념으로 「四方」「四海」「天下」「九州」 등의 用語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用語에 의해 표현되는 天下는 보편적 「世界」를 의미하고 동시에 中國의 支配者에 의해 지배되는 支配領域을 아울러 의미했다고 論究하고 있다. 그러나 漢代에는 郡國制의 實施 豪族의 擡頭, 北方의 匈奴遊牧帝國의 出現으로

皇帝에 의한 天下의 一元的 支配體制의 秩序가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漢帝國의 실제적 支配領域은 제한될 수 밖에 없었고 이같은 현상은 보편적 세계개념으로서 「天下」의 範疇과 일치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漢代의 天下觀念은 現實과 괴리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다음으로 著者는 「四海」「九州」「天下」 등의 이름으로 불렸던 세계를 지배하는 그 世界的 秩序수립을 위한 실제적 政治制度를 취급하고 있는데 本書에 의하면 漢의 이같은 政治制度는 郡縣制度和 封朝體制였다. 郡縣制度는 中國의 內地 즉 漢君主가 領土와 人民을 직접 그리고 人爲的으로 지배할 수 있는 地域에 실시된 制度였으며 封朝體制(朝貢과 封冊)는 中國의 外地 즉 郡縣制度를 통해 漢君主의 支配力이 직접 미칠수 없는 地域에 실시되었던 制度였다. 漢君主는 그의 支配領域의 世界的 擴大를 위해 郡縣制度和 封朝體制를 併用하였다.

郡縣制度和 封朝體制의 運用과 擴大과정은 4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 封朝體制의 形式的 적용, 2) 封朝體制의 形式과 內容을 갖춘 실질적 적용 3) 郡縣制度의 形式的 적용, 4) 郡縣制度의 실질적 적용이다. 著者에 의하면 이와 같이 郡縣制度和 封朝體制의 형식과 實質을 교묘히 결합한 運用방법으로 漢君主는 皇帝를 頂點으로 한 一元的 支配體制를 확대해갔고 이과정에서 주변 諸民族과의 關係는 和親關係와 內屬형태의 關係를 수립하고 和親 內屬의 단계를 거쳐 주변 諸民族에 대한 支配가 관철되면 마침내 漢君主의 支配領域으로 편입되었다.

대개 이상과 같이 漢帝國은 郡縣制와 封朝體制의 形式과 實質을 교묘히 배합 적용한 방법으로 皇帝에 의한 一元的 支配體制를 擴大해갔는데 前述한 바와 같이 漢帝國이 내포하고 있는 內적 外적 여러 矛盾으로 漢帝國의 理想이었던 皇帝에 의한 一元的 世界支配秩序를 實現하지 못하였다고 論究하고 있다.

대개 이상이 本書의 要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先秦時代 中國人의 世界觀의 形成과 그 性格이다. 일반

적으로 말해서 古代人의 世界觀 形成은 당대인의 생활영역과 지리지식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先秦時代에 나타난 「四海」「九州」「天下」 등의 世界觀과 그 範疇은 당시 中國의 諸夏世界를 중심으로 古代 中國人이 거주하고 활동하며 의식했던 세계 그리고 상호 왕래했던 夷狄들과의 접촉을 통해 알게 된 夷狄의 세계를 포함한 보편적 세계를 의미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著者의 論究에 의하면 이 天下는 中國 君主의 현실적 支配領域의 如何를 불문하고 中國 君主의 支配領域이었던 「王土」였다. 여기에서 先秦時代 中國人의 天下觀念은 華夷를 포함하는 보편적 天下 그리고 그 天下는 곧 中國天子의 지배영역이었던 「王土」이어야 하는 二重的 複合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著者는 보편적 세계를 지칭하는 「四海」「九州」「天下」 등의 天下觀念 및 시대에 따른 縮小와 變化를 儒家 墨家 道家의 諸典籍과 資料를 통하여 잘 밝히고 있으나 天下가 곧 中國 지배자의 「王土」이어야 하는 政治性에 대해서는 言及이 빈약하다. 中國 古代의 天下觀念 및 範疇에 내제되어 있는 政治性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하는 이유는 著者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 있는 漢代 中國의 世界秩序의 概念과 實體가 문화적이거나 지리적인 것이 아닌 政治的인 것이 때문이다.

다음으로 著者는 先秦時代의 天下觀念과 範疇가 경우에 따라서는 諸夏世界만을 의미하는 편협한 天下觀을 형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諸夏世界와 夷狄의 세계를 포함하는 廣義의 天下觀을 형성하였다고 論究하고 있는데 著者는 시대에 따른 天下觀의 擴大 縮小의 반복현상을 단순히 이중적 性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에는 古代中國의 天下觀의 變化는 단순한 이중적 性格에서의 결과라기 보다도 中國의 天下觀이 역시 內在하고 있는 그 政治性 때문에 해석된다. 이같은 필자의 시각은 漢代의 鹽鐵論에서 전개되었던 法家出身의 大夫와 文學之士들과의 論爭에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시대와 환경에 따른 天下觀의 擴大와 縮小의 반복현상을 唐代 宋代 清代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天下觀의 變化는 中國人의 意識上의 變化라기보다는 政治的 要因으로 간주하고 싶다.

著者の 論究에 의하면 秦代에는 皇帝를 頂點으로 한 一元的 支配體制가 확립된 統一國家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中國 天下의 支配領域이었던 王土와 諸夏世界와 四夷의 공간을 포함하는 天下와 일치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漢代에는 漢武帝時代를 제외하고는 豪族의 擡頭와 皇帝와의 天下共分 漢帝國의 政治 軍事力의 限界性 匈奴遊牧帝國의 出現 등의 諸要因으로 漢代의 天下觀은 郡縣的 支配力이 미쳤던 漢君主의 실질적 支配領域만을 의미하는 편협적 天下觀을 형성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때 漢代의 天下觀은 漢代의 支配領域만을 그 범주로 天下觀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著者の 지적대로 天下觀의 形成이 원래 古代 中國人들의 생활경험과 지리지식에 의해 生成된 것이라면 비록 漢代에 政治 軍事的 세력이 制限 縮小되었다고 해서 中國人의 意識上 또는 觀念上의 天下觀마저 制限되고 縮小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필자는 축소된 漢代의 天下觀은 法家出身의 大夫와 文學之士간의 政治的 論爭의 所產으로 보고 싶고 中國人들의 意識과 觀念속에 형성되었던 中土와 四夷의 공간을 포함하는 天下觀은 그대로 존속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이유로서 著者가 論究하고 있는 封朝體制 자체가 夷狄世界의 存在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鹽鐵論爭속에서 散見되는 天下觀은 다른 意味에서 별도로 論究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秦代의 天下觀에 대한 著者の 視角이다. 著者에 의하면 秦代의 天下개념은 郡縣制의 全國的 實施에 의해 皇帝에 의한 一元的 支配體制가 달성되었으므로 理想과 現實이 일치되었던 天下觀을 수립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는 秦代의 天下개념이 郡縣制를 통한 皇帝의 一元的 支配方式 구축에 의해 理想과 現實이 一致되도록 시행되었는지는 의문이다. 秦代에도 四夷는 여전히 存在하였고 秦의 南北의 夷狄에 대한 出征은 계속되었으며 北方의 包奴

遊牧帝國은 날로 강성하고 있었다. 또한 著者の 論究대로 秦代의 世界秩序가 郡縣制의 實施에 의해 一元的으로 형성되었다면 이것은 外形的인 사실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로 秦代에 郡縣制의 全國的 強行은 당시의 정치 사회 풍속의 諸여건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러므로 秦王朝은 短命의 王朝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 짧은 시기에 秦王朝가 理想과 現實에 一致된 世界秩序를 수립하였다는 사실에 어떠한 歷史的 意味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다.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著者の 郡縣制度和 封朝體制에 대한 시각이다. 저자에 의하면 封朝體制는 “복수의 독립적 정치권력이 병존하는 제도” 郡縣制度는 “하나의 權力에 의해 모든 領土와 人民이 一元的으로 지배되는 制度”로서 그 상호관계는 二律背反的이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漢帝國에는 이같은 二律背反的 二 制度가 병존하였던 것이며 그에 따라 漢帝國은 皇帝에 의한 一元的 世界秩序 수립에 실패하였다고 論究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점에서 필자는 著者와는 약간 다른 見解를 피력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秦은 정치 사회 풍속 등의 諸與件을 무시한 급격한 郡縣制度의 全國的 強행에 의해 短命의 王朝로 끝났다고 지적했는데 秦을 계승한 漢高祖 劉邦은 郡縣制의 급격한 시행에 의한 秦의 短命 또 頂羽의 시대에 역행하는 封建制에로의 복귀에 의한 失策 등을 면밀히 감안하고 그가 中國을 통일하였을 때는 建國初期의 現實을 깊이 통찰한 뒤에 郡縣制와 封建制를 절충한 郡國制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漢帝國의 政治的 理想은 皇帝를 頂點으로 한 中央集權의 官僚國家 樹立이었기 때문에 賈誼에 의한 衆建諸侯政策 조착에 의한 封地削滅政策이 계속 강행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政策強行에 불만을 품고 야기된 吳楚七國亂을 성공적으로 진압하므로써 漢帝國은 皇帝에 의한 一元的 支配體制를 일단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漢帝國이 中國의 皇帝에 의한 一元的 統治體制를 中原에 수립하였다고 해도 中外까지 皇帝支配力量이 직접으로 관철될 수 없는 것은 자명

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漢帝國은 著者の 지적대로 복수의 독립적 정치 권력을 인정하는 朝貢과 冊封으로 구성된 封朝體制의 간접적 지배방법을 택하고 이후 內屬의 여러 과정을 거쳐 漢帝國의 실질적 支配力이 관철되면 마침내 郡縣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므로 封朝體制를 통한 漢帝國의 中外支配方式은 漢帝國의 정치적 군사적 능력의 限界性을 실감한 漢君主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그 支配領域의 天下에로의 擴大를 시도한 정치적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郡縣制는 皇帝의 一元的 支配를 中原에서 관철시키는 직접적 지배방식이었다면 封朝體制는 漢君主가 직접으로 지배할 수 없었던 中外的 諸夷狄을 간접적 우회적으로 지배를 시도한 지배방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漢代의 郡縣制와 封朝體制는 상호 二律背反의 存在가 아니라 皇帝의 一元的 支配體制를 실현하는 상호 보완적 연속적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漢君主가 封朝體制를 채택하고 이를 통해 그의 支配領域을 天下에로 확대해야 하는 理由 또는 그 當爲性은 漢君主는 天命을 받은 受命의 君主로 天下의 唯一無二한 支配者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漢帝國內에서 功臣集團의 天下分占論 豪族들의 天下共有論 등은 對內的인 문제이고 夷狄의 세계가 前提되는 한 天子는 夷狄들의 制御 또는 支配를 위한 統治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漢代의 封朝體制는 夷狄의 制御와 支配를 위한 정치적 통치수단이었고 이의 貫徹을 통해 漢帝國은 中國의 世界秩序를 수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中國과 四夷를 기반한 고대 中國人이 天下觀은 요지부동이었다고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대두된 天下觀의 縮小현상은 당대의 정치적 利害關係를 위요하고 전개된 정치적 所産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漢帝國과 匈奴遊牧帝國과의 關係이다. 著者는 兩者의 關係는 和親關係였는데 和親關係는 양국간의 정

치적 關係가 水平的 獨立的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漢高祖가 平城에서 대패한 이래 漢武帝 초기까지 약 60여년에 걸쳐서 漢이 匈奴에게 일방적으로 매년 보냈던 歲幣 그리고 公主의 出家 그리고 이에 대한 匈奴측의 答禮는 오직 邊境不侵이었는데 이같은 和親關係가 著者が 주장하는데로 서로의 이익을 교환했던 상호 平等關係였는지는 깊은 의문이 간다.

끝으로 한가지 더 첨가하고 싶은 것은 本書의 內容이 中國을 중심한 中國의 對外關係를 취급하고 있는데 이 研究의 基本資料는 모두 과거 中國人들이 기록하고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그 기록과 작성이 對外사실에 관한 한 “中國爲主”의 또는 “中華的”인 경향이 있을수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한 著者の 言及이 빈약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상으로 本書를 읽으면서 평소에 관심있는 몇 부분을 읽어보고 느낀 것을 적어 보았다. 이 중에서 혹자 著者の 意圖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그릇된 見解를 피력하였는지 지극히 염려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반가운 것은 개설서 하나 변변히 갖지 못하고 있는 우리 中國史 분야에 이같이 방대한 研究著書가 나온 사실이다. 또한 本書는 앞서 말한 바와같이 고대 中國의 天下觀과 世界秩序 樹立에 관한 집약적 研究인데 특정 제목에 관한 이같이 방대한 研究는 아직도 연구가 빈약한 中國古代史 研究에 있어서 밑거름과 촉진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1984. 2.

李 春 植